

전국 순회 양계 강습회



오 봉 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본회 고문

1. 머리말
2. 내가 가금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
3. 미국유학에서 배운 산학협동
4. 가금연구회의 발족
5. 장안동 양계강습회
6. 한국가금협회 창립
7. 육추일지(育雛日誌)와 협회운영
8. “월간양계” 잡지 발간의 산고
9. 전국 순회 양계 강습회
10. 나의 연구생활
11. 양계박람회
12. 닭 경제능력 검정소
13. 재래닭의 복원과 육용화 연구

본고는 양계와 한평생을 함께 한 오봉국 교수(서울대 명예교수)가 그 동안의 인생여정을 정리하여 출간한 ‘축산의 비전을 심으며 살아온 나의 인생여정’ 자서전 내용 중 ‘양계와 함께 걸어온 나의 회고’ 내용을 발췌, 게재한 것이다. 오봉국 교수는 1925년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나 1956년 서울대학교 축산과에서 농학석사과정을 거친 후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석, 박사과정을 마친후 서울대학교에서 후학양성은 물론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웠다. 1969년에는 (사)한국가금협회장(대한양계협회 전신)을 역임하고 현재까지 대한양계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1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현대가금학 등 16편의 주옥같은 저서를 남겼다. - 편집자주 -

9. 전국 순회 양계 강습회

1963년부터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일 년에 한번 가금협회에서는 지방순회 양계강습회를 계획하고 충남 광천 또는 홍성, 전북 전주,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하고 때로는 충북 청주, 강원 춘천에서도 개최한 바 있다.

지방강습회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서울·경기지역에서는 매월 월례양계강습회가 개최되어 양계의 새로

운 지식과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고 업계동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빠르게 교환되어 여러모로 양계경영에 유리한 여건 하에서 양계사업을 경영하는데 반하여 지방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리한 사항을 전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계가 스스로가 불리한 여건 하에서 양계를 경영한다고 생각하여 가금협회로 하여금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지방에 있는 양



▲ 하계양계강습회(1971)

계가를 위하여 지방순회양계강습회를 개최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강습회내용은 양계산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대응방안, 최신양계사양관리기술, 가금질병대책방안 등이며 강사진으로는 오봉구 교수(서울대), 오세정 교수(건국대), 최창해 교수(서울산업대), 이창구 박사 또는 박근식 박사(가축위생연구소) 등이었다.

지방강습회의 주최기관은 협회도지부가 되고 도지부에서는 개최 장소, 강사진들의 숙박비를 책임지고 협회 본부에서는 강사들의 강사료와 교통비, 교재 인쇄비, 기타 섭외 등을 책임지고 운영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협회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지방강습회 경비도 특별회계방식으로 사업별로 그때그때 벌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우선 교재는 업계 광고찬조로 제작되고 강사료는 업계광고료 수입의 일부와 특별찬조비로 사료협회와 지방강습회를 공동개최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당시 사료협회 회장으로 계시던 유운수

선생님의 특별한 협조와 도움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유운수 회장님도 강습회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사료의 수급현황과 전망에 대한 특별강연도 해주었다.

지방순회 하계강습회 소식 한 토막을 소개하면 강습회 시기는 대개 7월 중·하순에 시작하여 5~6개소의 지방을 순회하다보면 8월 초순에 끝이 난다.

이때는 장마 끝이라 무더운 삼복더위에 해당되는데 강습회 시작은 오전 중에 그 지역의 시장, 군수님의 축사와 인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현황, 문제점, 대책방안 등의 강의로 오전 행사가 끝난다.

오후는 사양관리, 질병 등 실제 양계 기술 강의로 이루어지는데 항상 강의 끝머리는 닭의 질병대책에 관한 강의로 끝을 맺게 된다. 그 이유는 강습회에 나오는 양계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닭 질병문제다.

닭 질병강의를 일찍 끝내면 대부분의 양계가는 강의실을 빠져나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닭 질병강의를 맡은 이창구 박사나 박근식 박사는

꼬박 강의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 고역을 치르곤 하였다.

그 당시 강습회 장소는 대부분 학교 강당이나 시청 회의실이었는데 강의실 시설도 열악하고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가 고작이었다.

1969년 미국 아폴로 위성이 달에 우주인을 싣고 착륙하였다는 큰 뉴스가 있는 날이었다. 대구상고 강당이 강습회 장소였는데 이날 대구 낮 기온이 무려 섭씨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였다.

오후 강의가 시작되자 강당 안을 짝 메운 청중의 열기와 무더운 날씨 탓에 40도를 오르내리는 강당 열기는 선풍기 한두 대로는 더위를 식힐 수 없어 나중에는 얼음집에 부탁하여 얼음 덩어리 몇 개를 강당 단상 위에 놓고 더위를 식혀가면서 강습회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가장 고생하고 늦게까지 질문공세에 시달린 강사는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계약과장으로 계시던 박근식 박사였으며 지금도 그 시설 양계지방강습회를 연상하며 여러 가지 추억거리가 연상되며 박근식 박사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지방 순회양계강습회는 지방에 있는 양계 농가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으며 이 행사를 통하여 가금협회는 지역간, 회원간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10. 나의 연구생활

나의 학문분야는 닭을 개량하는 육종학이기 때문에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장시일이 걸리며, 육종재료로 많은 원종계통을 가져야 하고, 이에 알맞은 사육 수수와 시설이 필요한 만큼 시험사업비도 많이 드는 학문분야이다. 따라

서 400수 정도의 사육규모를 가지고 있는 열악한 대학부속목장의 시설이나 예산규모로는 나의 전공분야에 대한 대학의 기금학교육과 연구에는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있었다.

나의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와 우리나라 종계개량에 필요한 육종재료인 근친계통 닭의 확보는 1956년 Minnesota대학의 원조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사육하고 교배시험을 할 시설과 예산이 없어서 당시 학장으로 계시던 조백현 선생님에게 괴로움도 드렸고, 꾸지람도 받았다. 결국 대학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 성환에 있는 축산시험장과 공동연구(1957)를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종계개량 사업을 통한 산업계 기여를 생각하여 1959년 당시 동신중축장(현 한협축산) 박도현 사장님의 종계개량에 대한 집념과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산업체와의 인연을 맺고 기술 지도를 시작하게 되었다(참고문헌: 최창해 1977, 한국양계, 박도현 1977, 한국양계 66쪽).

축산시험장과의 공동연구는 주로 채란종계 육종사업으로 우량교배조합 선발시험을 통한 1대 잡종 작출에 대한 교잡육종시험이었으며, 1957년부터 1985년까지 28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산란용 종계를 육성, 보급하고 연구논문도 다량 발표하게 되었다.

본 공동연구 참여 인사로는 오봉국, 김동곤, 최창해, 박상문, 송기덕, 강만석, 원종수 등이다.

산학협동을 통한 연구로는 한협가금육종회사와의 공동연구인데, 전신인 동신중축장에서는 나의 기술 지도를 받아 육종개발 한(1960~1970년) 채란계로서 명성을 높였던 동신햄프혼과 한협 122호가 실용계로서 작출되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개발

과 국산화를 조장,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동기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비는 기술개발을 받고자 하는 산업체와 국가에서 반반씩을 부담하여 수행되는 연구 사업이었다.

당시 과기처 축산관계연구 조정관으로 계시던 김영한 선생님(전 축산국장, 가축위생연구소장)의 특별한 배려와 협조로 한협가금육종회사와 서울대 농대 오봉국 교수가 산학협동 공동연구 사업으로 1974~1976년까지 3년간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공동연구사업으로는 육용종계의 국산화를 위한 육종사업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육용종은 전부 수입하여 사육하고 있던 때였다.

이 연구사업을 통하여 육종개발된 품종은 「한협 603」, 「한협 607」로서 한협 603호는 처음으

로 국산 육용종계로 개량된 품종으로서 인기가 있었고, 이 당시 전 육계사육수수의 40~50%를 차지하게 되었다.

나의 연구생활 중 위에 기술한 축시와의 공동 연구와 한협과의 산학협동연구 없이 대학에서 조용히 교수생활에만 안주하였다면 나의 연구 생활은 허무하게 끝을 맺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의 공동연구생활에서 얻은 점이 있다면 그간의 나의 연구업적과 대학원생을 육성 배출하였다는 것 외에 인생의 경험에서 얻은 하나의 교훈이라면 산학협동이나 공동연구 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명예를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에게 겸손하고 협동, 봉사한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꼈다. **양계**



농장주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해드립니다.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부성축산

대표 : 이재완

대구시 북구 관음동

TEL : (053) 324-7752

FAX : (053) 324-7736

H·P : 011-518-7752

010-4000-9023